

• IR/PR •

하우리 백신에 스팸메일 차단기능 추가



▲ 바이로봇 엑스퍼트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및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전문 개발업체 하우리(대표이사 권석철)는 자사의 데스크탑용 백신 프로그램인 '바이로봇 엑스퍼트'에 스팸메일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스팸메일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백신 프로그램은 PC에 직접 설치하고 스팸메일 필터링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 등 메일 차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바이로봇엑스퍼트에 추가된 스팸메일 차단기능은 특정 문자열을 포함한 제목·본문내용·보낸사람이름 등으로 메일을 분류해 걸러낸다. 또 걸러진 메일은 별도의 폴더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메일이 스팸메일로 잘못 걸러져 삭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 바이로봇엑스퍼트 사용자는 하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팩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 S/W산업발전 공로 수상

소프트파워(대표 김길웅)가 산업발전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했다. 소프트파워는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저작도구 'Process Q'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자립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소프트파워는 INTEL, CA와 함께 'Process Q'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세계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를 발판삼아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의 전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사측에서는 "지난 9월 INTEL의 아시아태평양 담당이 본사를 방문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저작도구인 'Process Q'를 보여주었더니 감탄했다"며, 특히 컴퓨팅환경에서 개발된 ERP가 아무런 변환없이 그대로 모바일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파워는 INTEL, CA와 함께 'Process Q'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휘엔시스 일본 스미토모상사와 수출계약 체결



휘엔시스(대표 이준우)는 일본 스미토모상사와 Stand Alone Type의 4채널 DVR(모델명 : C-Keep420)을 연간 약300만불 규모의

OEM 공급계약 및 영상 압축저장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양사간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 이로 인하여 휘엔스는 새로운 시장개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수출 계약을 체결한 DVR은 기존 주력 제품인 C-Keep410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품질, 성능면에서 월등히 개선된 제품이다. 이는 품질 테스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최고의 유통업체에 중소기업으로써 당당히 5개월간의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1년 미국의 Pelco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인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또다시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피코소프트,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피코소프트(대표 유주한)는 브라질 온라인로또 사업확대를 위해 현지법인인 '피코 도 브라질'을 피코웨저링과 합작으로 설립한다.

출자비율은 피코소프트와 피코웨저링이 1대 99비율. 피코도 브라질은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캐피탈사와 공동으로 리오데자네이로 주에서 2003년 2월 22일부터 온라인로또 본 발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피코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으로 피코도 브라질을 통해 브라질 내 각종 정부 로또사업권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수탁사업권 획득에 따른 자금소요 부분은 투자유치 전문업체인 피코웨저링을 통해 조달해 나갈 방침"이라 설명했다. 또 온라인로또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소프트웨어, 서버, 터미널 등 각종 시스템을 일괄 공급해 이에 따른 운영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피코소프트는 브라질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로또를 합법시장으로 흡수해 매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